

한국인이 호주인과 만났을 때 - 새 이민자의 호주사회로의 융합

지역사회내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호주 현지사회에 잘 융합하고 현지의 문화, 관습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민자들은 호주 생활습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혹은 문화와 풍습의 차이로 현지에서는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 어떤 행동들은 현지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합법적인 권익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카스(CASS)에서는 우리 이민자들이 호주의 문화, 가치관, 법률 등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조금 더 빨리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12주에 걸쳐 매주 "주간 에티켓" 컬럼을 게재, 한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호주에서는 부합되지 않는 예절이나 법규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본 컬럼을 위해 특별히 삽화를 그려준 프랜시스 리(Francis Lee) 호주 국민훈장(OAM) 수훈자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관습 1 공공장소 소음



서양문화에서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가능한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려 노력합니다. 가능한 작은 소리로 이야기함으로써 자기의 여가시간을 즐기면서 동시에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사생활(privacy)도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이어폰(headphone/earphone)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니다. 기차, 버스, 도서관, 영화관 등 정숙해야 할 곳에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 이어폰을 끼지 않고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음악을 듣는 행위 등은 적절하지 않은 공공 에티켓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가능한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서로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에는 이어폰을 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This project is funded by Department of Home Affairs Fostering Integration Grant Scheme Program"